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의 매개 효과*

임 정 민

연세의료원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이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여기에서 관계의 질이란 개인이 타인과 맺고 있는 특정한 관계로부터 얼마만큼의 사회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관계로부터 개인이 어느 정도의 갈등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 그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중요하며 안정적인지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거부민감성, 관계의 질, 적대적 행동, 자기 침묵 수준을 온라인 설문문을 통해 측정된 뒤 Preacher와 Hayes의 매 크로 및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이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을 줄이도록 개입 한다면 관계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는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거부민감성, 관계의 질, 적대적 행동, 자기 침묵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2014)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경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E-mail: kjoh@yonsei.ac.kr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항상 지각하고, 거부 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거부 당하는 것에 대해 높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고, 거부와 관련된 단서에 대하여 과잉 경계적인 태도를 보이며, 거부를 당했다고 인식하였을 때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신호에 대해서도 쉽게 거절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식한 거부를 대인관계에서의 상실로 지각하여 우울을 경험하거나 의기소침, 지지의 철회, 질투, 타인을 통제하려는 부적절한 시도 등의 형식으로 과잉 반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Downey & Feldman, 1996). 반면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거부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으며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Ayduk, Mendoza-Denton, Mischel, Downey, Peake, & Rodriguez, 2000).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다양한 정신 병리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연구되어 왔는데, Ayduk, Downey와 Kim(2001)은 1년 기간의 종단 연구를 통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성 친구와 이별을 경험하였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임을 밝혔으며, Mellin(2008)의 연구와 Ayduk 등(2001)의 연구에서 역시 거부민감성이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Marston, Hare와 Allen(2010)은 종단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과 불안의 정적 상관 관계를 확인하였고, London, Downey, Bonica와 Paltin(2007)의 연구에서는 거부를 당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회 불안 수준이 더 높음을

주장하였다. 이 뿐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위축 등의 다양한 병리적 특성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적게 경험하는 것,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인 관계의 질 역시 거부민감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Downey와 Feldman(1996)은 이성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부민감성 수준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간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거부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이 포함된 커플일수록 본인이 평가한 상대방과의 관계 만족도가 낮았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파트너가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 덜 만족할 것이라고 보고했음을 밝힌 바 있다. Downey, Freitas, Michaelis와 Khouri(1998)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이 포함된 커플이 이성 친구와 이별하는 경향이 더 많아 이별을 예측하는 하나의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Downey, Lebolt, Rincón과 Freitas(1998)는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이 학교 내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경험함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거부민감성이 관계에 대한 만족도나 관계가 종료될 확률, 관계 내에서 겪는 갈등 정도 등 전반적인 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음을 주로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거부민감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경로를 이해한다면 보다 세분화된 개입 전략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관계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감소 및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행동 특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거부민감성과 관계의 질 간 경로에서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거부에 대한 민감성에 대하여 외현적(overt)으로 대처하거나 내현적(covert)으로 대처한다고 한다(Ayduk, May, Downey, & Higgins, 2003). 외현적인 대처로는 신체적, 언어적, 비언어적 공격 행동 또는 적대적 태도 등이 있고 내현적인 대처에는 자기 침묵(self-silencing), 자신의 의견 표현 억제, 감정 억제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외현적 대처 중에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며, 내현적인 대처 중에서는 자기 침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침묵이란 Jack(1991)이 여성이 경험하는 우울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으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의 감정, 생각, 행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Jack & Dill, 1992).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Downey, Feldman과 Ayduk(2000)은 이성 친구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거부민감성과 이성 관계에서 보이는 공격적 행동, 관계에 대한 투자 이 세 요인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였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남성이 이성 친구에게 더 많은 빈도의 신체적 공격 행동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Ayduk, Downey, Testa, Yen과 Shoda(1999)는 여성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적대감(hostility)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적대감을 상대방에 대한 저하된 평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는데,

여성 피험자에게 잠재적 남성 데이트 파트너가 당신과의 인터넷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피드백을 제공한 뒤, 해당 남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내용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것 같은지, 그 사람의 첫인상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은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방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성 관계에 있어서 거부민감성이 높은 남성이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질투하며,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성 친구를 모욕하거나 이성 친구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적대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자신을 거부한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핫소스를 더 많이 먹이려 했다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었다(Ayduk, Gyurak, & Luerssen, 2008; Downey & Feldman, 1996). 높은 거부민감성이 다양한 방식의 적대적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적대적 행동을 통하여 외현적으로 행동한다는 연구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즉 내현적인 행동을 많이 보임을 밝힌 학자들도 있다. 내현적인 행동 중에서도 자기 침묵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였는데, Harper, Dickson과 Welsh(2006)는 거부민감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기 침묵이 매개 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이성 친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거부민감성은 자기 침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친밀감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자기 침묵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men, Chambless, & Rodebaugh, 2002).

Purdie와 Downey(2000)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성일수록 이성 관계에서의 갈등 발생 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지라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答한 비율이 더 높았음을 밝혔고, Luterek, Harb, Heimberg와 Marx(2004)의 연구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았던 사람 중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에 순응하고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자기 침묵과 동일한 개념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억압하고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침묵과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거부민감성과 자기 침묵의 정적 상관관계가 입증된 바 있다(김진선, 2009; 정신아, 2013).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적대적인 행동 또는 자기 침묵을 많이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행동 패턴이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소속 기관의 연구 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방법, 위험요소, 피험자 정보 보호 등에 관하여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쳐, 서울 소재 Y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195명의 참가자 중 중간에 설문을 중지한 8명, 외국인 7명, 불성실하게 일괄 응답한 1명 등 16명을 제외한 179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가자는 남자 71명(39.7%), 여자 108명(60.3%)이며, 평균 연령은 21.83세($SD=2.07$)였다.

측정 도구

거부민감성 측정 척도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RSQ)를 이복동(2000)이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인 초기의 일상생활에서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적 친구 등의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한 뒤, 응답자가 각각의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 염려되거나 불안한지의 여부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지의 여부를 각각 6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대상을 친구로 설정하여 수정한 뒤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이었다.

관계의 질 측정 척도

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Pierce, Sarason과 Sarason(1991)이 개발한 Quality of Relationship Inventory(QRI)를 강교민(2011)이 우리말로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측정하도록 척도를 수정해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식 척도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의 질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계의 질이 좋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보다 많이 얻을 수 있고, 관계로부터 경험하는 갈등 및 양가성이 낮으며 관계가 개인에게 중요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정적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적대적 행동 측정

적대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Tolman(1989)이 처음 개발, Kasian과 Painter(1992)가 수정한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Women Inventory (PMWI)의 37개 문항을 Feldman과 Downey(1996)가 요인 분석하여 적대적 행동(hostile behavior)으로 추출한 문항 6개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을 친구로 설정하여 수정해서 사용하였으며, 개인이 나타내는 다양한 적대적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고 있다. Likert 식 6점 상에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적대적 행동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9이었다.

자기 침묵 측정

본 연구에서는 Jack과 Dill(1992)이 개발하고 양지윤(2006)이 번안한 자기 침묵 척도(Silencing The Self Scale; STSS)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친구, 애인 등 다양한 타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 침묵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대상을 친구로 설정하여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 상에서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 침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변인에 대해 기술 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이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활용하는 Preacher와 Hayes(2008)의 매크로를 사용하였다.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중다매개분석 방법은 다수의 매개 변인을 하나의 모형에 상정하여 매개 변인들 간의 상호 영향력을 통제하고 각각의 독립적인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서영석, 2010).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간접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얻어진 자료의 재표집을 통해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효과의 정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다(Preacher & Hayes, 2004). 연구에서 사용된 부트스트래핑의 표본 수는 1000이었으며, 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95%의 신뢰수준을 설정한 후,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표 1에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N=179)

| | 1 | 2 | 3 | 4 |
|-----------|---------|---------|-----|---|
| 1. 거부민감성 | 1 | | | |
| 2. 관계의 질 | -.58*** | 1 | | |
| 3. 적대적 행동 | .28*** | -.38*** | 1 | |
| 4. 자기 침묵 | .54*** | -.51*** | .14 | 1 |

주. *** $p < .001$

제시하였다. 거부민감성은 관계의 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r = -.58, p < .001$), 적대적 행동, 자기 침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28, p < .001$; $r = .54, p < .001$). 관계의 질은 적대적 행동, 자기 침묵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38, p < .001$; $r = -.51, p < .001$).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r = .14, p > .05$).

거부민감성과 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의 매개효과 검증

먼저,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관계의 질에 대한 예측변수로서 거부민감성을 상정하고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은 관계의 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 = -1.28, p < .001$), 관계의 질 전체 변량의 33.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 매개변인이 포함된 모형을 분석하였다(그림 1). 관계의 질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직접 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한 경우, 거부민감성은 관계의 질 변량의 45.0%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적 행동($B = .32, p < .001$), 자기 침묵($B = 2.29, p < .001$)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행동($B = -.46, p < .001$)과 자기 침묵($B = -.15, p < .001$)은 관계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아울러, 매개 모형에서 간접 효과를 배제한 경우에도 거부민감성은 관계의 질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B = -.80, p < .001$). 이에,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은 거부민감성과 관계의 질 간 경로에 있어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과 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간접 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행동을 거쳐 관계의 질에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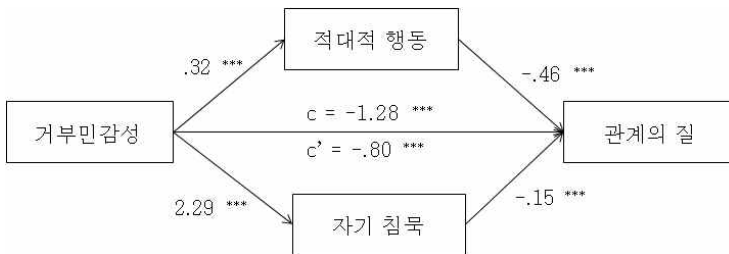


그림 1. 매개효과 분석 결과

주. *** $p < .001$, c는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표준화계수, c'은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이 매개변인으로 있는 모형에서 거부민감성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의 비표준화계수

표 2. 개별 매개효과의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 모형 | 경로 | 매개효과 크기 | 표준 오차 | 95% 신뢰구간 (Bias corrected) |
|----|------------------------|---------|-------|---------------------------|
| 1. | 거부민감성 → 적대적 행동 → 관계의 질 | -.15 | .06 | [-.32, -.06] |
| 2. | 거부민감성 → 자기 침묵 → 관계의 질 | -.34 | .09 | [-.51, -.19] |

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에서 간접 효과 크기는 -.15, 95% 신뢰 구간은 [-.32, -.06]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에 적대적 행동의 부분 매개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자기 침묵을 거쳐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에서는 간접 효과 크기 -.34, 95%의 신뢰구간이 [-.51, -.19]로 역시 0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자기 침묵의 부분 매개 효과 역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과 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질이 저하된 대인 관계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더 낮은 관계 만족도를 보이고, 관계 종결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맥락의 결과이다 (Downey & Feldman, 1996;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다음으로 매개 모형을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과 관계의 질의 관계에서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이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행동의 부분 매개 효과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에서 거부를 당하는 것은 공격성

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Leary, Twenge, & Quinilivan, 2006).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거부를 과잉 경계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거나 작은 단서에도 거부를 지각,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대적 행동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관계에서의 갈등이 야기되어 원만한 사회 교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침묵의 부분 매개 효과에 관해서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 당하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해 채택된 자기 침묵은 모순적이게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불편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상황 개선의 기회 자체가 소실되는 것과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Cramer, Gallant, & Langlois, 2005).

그리고 거부민감성과 관계의 질의 경로에 있어서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 중 자기 침묵의 부분 매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거부를 당하기 전과 후의 시점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을 고려하여 위의 차이에 대한 가설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먼저, 거부를 당할 것에 관해 높은 불안

느끼며 실제로 거부를 당했을 때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은 거부를 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의견 차이나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자기 침묵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대적 행동은 대인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다. 다음으로 거부를 당하거나 혹은 당했다고 지각한 경우에는, 불편감을 야기하는 거부적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기 침묵을 할 수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거부에 대한 반응으로 적대감을 표현할 수 있다. 자기 침묵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 보다 광범위한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이며, 이것이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행동에 비해 자기 침묵과 더 강한 상관 관계를 보인 배경, 그리고 관계의 질에 대한 간접효과의 크기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거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 시점 별 행동 특성을 확인 및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아울러, 적대적 행동과의 비교 시 자기 침묵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의 간접 효과를 보인 것에 대해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겠다. 주변 인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집단과 자기 돌봄(self-nurturance)을 중요시 여기는 집단 간 자기 침묵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연구,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중 아시아계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기 침묵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 등을 통하여 자기 침묵 정도가 문화권 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Ali & Toner, 2001; Gratch, Bassett, & Attra, 1995). 적대적 행동 역시 공격성이 표현되는 양상이

나 그 정도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다(Fry, 1998; Ramirez, Andreu, & Fujihara, 2001).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에 대하여 다문화 간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겠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적대적 행동 양상이나 관계 패턴이 다르다고 보고되고 있고, 자기 침묵의 경우에도 성차를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한다(Harper, Dickson, & Welsh, 2006; Ussher & Perz, 2010). 본 연구에서도 남녀 성별 차를 포함하여 추가 분석하였으나 모든 측정 변인에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아 결과에서는 성차를 구분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성차가 유의하지 않은 이유로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 관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대학생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최임숙, 2004). 추후 연구에서는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거부민감성과 관계의 질 간 경로에 대해, 그리고 매개 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을 시행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그 양상은 각기 다르겠으나 누구나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개인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기도 한다. 관계의 질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다양한 정신 병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해 볼 때, 양호한 관계의 경험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 하는데 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매개 요인을 확인한 본

연구를 통해 개입 전략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적대적 행동이나 자기 침묵을 줄임으로써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겠는데, 행동 통제력의 배양, 다양한 의사 소통 기술의 습득, 자기 개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설계가 횡단적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거부민감성 수준, 관계의 질, 양상, 적대적 행동 및 자기 침묵의 정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는 인과 관계를 명확히 검증하는 것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 수준에 따라 어떠한 관계 양상이 발현되는지와 그 관계에서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관계의 질, 적대적 행동, 자기 침묵을 측정하기 위한 각 척도에서 그 대상을 친구로 일치시켰다. 각 척도가 측정하는 내용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개인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자, 삶의 전반적인 시기 동안 경험된다는 점에서 영향력과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은 친구 뿐 아니라 가족, 이성 친구, 소속된 집단 내의 사람 등과도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각 특성은 상이한 양상을 취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계 속 인물을 측정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거부민감성과 관계의 질,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 간의 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관계의 질을 자기보고에

의한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즉, 관계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 양상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참가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인물의 보고를 포함하여 측정 및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행동과 자기 침묵 간 어떠한 상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격적 요인, 혹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른 행동 양상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경로를 탐색해 보는 것도 보다 세분화된 개입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진선 (2009). 거절 민감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자기 침묵을 매개변인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교민 (2011). 사회불안이 신체증상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양지윤 (2006). 애착 유형, 자존감, 자기침묵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

- 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신아 (2013). 거절민감성과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임숙 (2004). 중, 고,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발달과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213-232.
- Ali, A., & Toner, B. B. (2001).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caribbean women and caribbean-canadian women; an investigation of self-silencing and domains of mean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 175-180.
-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868-877.
- Ayduk, O., Downey, G., Testa, A., Yen, Y., & Shoda, Y. (1999). Does rejection elicit hostility in rejection sensitive women? *Social Cognition, 17*(2), 245-271.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Ayduk, O., May, D., Downe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 Ayduk, O., Mendoza-Denton, R., Mischel, W., Downey, G., Peake, P. K., & Rodriguez, M. (2000). Regulating the interpersonal self: strategic self-regulation for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5), 776-792.
- Cramer, K. M., Gallant, M. D., & Langlois, M. W. (2005). Self-silencing and depression in women and men: Comparative structural equation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3), 581-592.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 Downey, G., Lebolt, A., Rincó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4), 1074-1091.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31-231.
- Fry, D. P. (1998).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aggression: sex differences and cultural variation. *Aggressive Behavior, 24*(2), 81-95.
- Gratch, L. V., Bassett, M. E., & Attra, S. L. (1995).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ethnicity to self-silencing and depression

-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509-515.
- Harper, M. S., Dickson, J. W., & Welsh, D. P.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435-443.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1), 97-106.
- Kasian, M., & Painter, S. L. (1992). Frequency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abuse in a dating popul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7, 350-364.
- Leary, M. R., Twenge, J. M., &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11-132.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Luterek, J. A., Harb, G. C., Heimberg, R. G., & Marx, B. P. (2004). Interpersonal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mediator of depressive symptoms and anger supp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1), 90-107.
- Marston, E. G., Hare, A., & Allen, J. P. (2010). Rejection sensitivity in late adolescence: Social and emotional sequela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4), 959-982.
- Mellin, E. A. (2008). Rejection sensitivity and college student depression: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1(1), 32-41.
- Pierce, G. R., Sarason, I. G., & Sarason, B. R. (1991). General and relationship-based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Are two constructs better than o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1028-1039.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Purdie, V., & Downey, G.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adolescent girls' vulnerability to relationship-centered difficulties. *Child Maltreatment*, 5(4), 338-349.
- Ramirez, J. M., Andreu, J. M., & Fujihara, T. (2001). Cultural and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comparison between Japanese and Spanish students using two different inventories. *Aggressive Behavior*, 27(4), 313-322.
- Remen, A. L., Chambless, D. L., & Rodebaugh, T. L. (2002). Gender differences in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2), 151-159.
- Tolman, R. M. (1989).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 women by their male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4(3), 173-189.
- Ussher, J. M., & Perz, J. (2010). Gender differences in self-silenc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informal cancer car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 228-242.

원고접수일 : 2016. 11.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6. 12. 11.
게재결정일 : 2016. 12. 14.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The Mediating Role of Hostile Behavior and Self-silencing

Rhim, Jung Min

Severance Hospital

Oh, Kyung Ja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diating role of hostile behavior and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quality of relationship. A total of 179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the measures of rejection sensitivity, quality of relationship, hostile behavior, and self-silencing through an online survey program. The data was analyz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hostile behavior and self-silencing using Preacher & Hayes macro and bootstrapping. The results showed that hostile behavior and self-silenc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quality of relationship. This suggests that even those who have high rejection sensitivity can prevent experiencing low quality of relationship by reducing hostile behavior and self-silencing.

Key words : rejection sensitivity, quality of relationship, hostile behavior, self-silencing